

# 최근의 중동정세와 석유전망

피엘·사마스

〈아랍프레스서비스 시장〉

## 1. 최근의 석유산업 동향

### (1) 석유산업의 전망

우리가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의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현재와는 판이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만해도 목탄, 말 등 동물의 기름, 그리고 노예 등이 주요에너지원이었다. 그 당시 만일 컴퓨터가 있

어서 이들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인간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를 계산해 보았다면, 1993년까지 이미 산업은 소멸되고 세계도 종식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간의 생활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석유를 비롯한 여러가지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에너지 산업을 비롯하여 산업활동이 지난 1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석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석유산업이 앞으로 100년간 더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석유는 비교적 생산비가 저렴한 에너지원이었지만, 연소 코스트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에너지稅에 대해 알아본다.

## (2) 환경稅 도입에 대한 산유국측의 입장

石油稅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환경보존이고, 또 하나는 稅收의 확보이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에너지稅가 재정적자를 완화하거나 경제 성장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收入源으로 보고 있으며 EU는 환경보호라는 측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美國이나 EU의 경우 에너지稅, 石油稅에 대해서는 매우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데 石油稅에 대한 산유국측의 입장은 OPEC, 非OPEC 간의 1993년 4월 합동회의에서 분명해졌다. 약 30개국의 석유장관들이 마스캇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당시 OECD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해 OPEC측 및 非OPEC측은 다소 놀랐는지도 모른다. 최종 성명중에 명시적은 아니지만, 암시적인 형태로 이른바 Green tax에 대해 Go sign의 성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석유생산국이라는 측면에서 OPEC는 전세계의 산유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OPEC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에 대해 고찰할 때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때 美國이 서방 선진국과 합동군을 편성하여 사우디를 방위하고 쿠웨이트를 해방시켰다. 사우디는 이를 매우 고맙게 생각했으며, 서방측의 지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는 특히 美國에 대해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美國이나 EU가 환경稅를 도입시에는 이에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최근 아랍 배척 운동을 벌이도록 전세계에 호소했을 때, 사우디는 이에 반발했다. 그런데, 美國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쿠웨이트와 사우디를 보호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우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이들 국가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이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美國의 반응이었다.

따라서 환경稅 등의 조치를 美國이 취하는 경우, 사우디는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계속하거나 입으로만 불평을 계속하는 정도일 것이다.

日本정부도 언제인가 환경稅 도입이 불가피할 때가 오리라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으면 美國이나 EU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OPEC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테마에 대해 좀 더 깊이 고찰해보자. 우선 환경稅 도입시 日本정부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바라느냐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석유稅나 에너지稅를 도입함에 있어, 이를 稅收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또는 순수하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판별해야 한다.

만일 日本정부가 이것을 稅收源으로 보고 있다면,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파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안이 제출되는 날에는 각종 로비스트들이 이를 공격하여, 결국 제안은 공중분해되어 버릴 것이 예상된다.

美國의 클린턴행정부의 Btu에 근거한 稅方式을 최초로 도입했을 때, 역시 美國에서도 각종 로비스트들이 이를 무산시켜 버렸다. 최초로 제안된 Btu稅는 매우 순수하고 단순한 것으로, 석유에 대해 1배럴당 3.5달러 정도의 세금이 과세되면, 가스에 대한 과세율은 좀 더 낮고, 석탄이나 원자력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과금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원래 클린턴 행정부는 이것을 稅收로 간주해왔으며,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첫째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돈벌이 사업이 되면 각종 로비스트들이 공격을 가했던 것이다. API도 공격했고 정유업자들도 모두 반대하였다. 석탄업자들도 로비 활동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각종 에너지源간의 경쟁이 된 것이다.

현재는 최초의 제안과 상당히 내용이 변질되었으며,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승인시에는 최초의 Btu稅라는 형태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각종 에너지 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로비활동을 전개하여, 강력한 곳에 대한 세금의 영향은 적어지고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稅부담이 커지게 된다. 어쨌든 지리멸렬된 상태로, 최초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의 정세는 美國과는 전혀 다르다. 유럽쪽에서는 순수하게 환경을 보호할 목적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은 석유산업 규제 강화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으로 석유산업의 규제완화·자유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프랑스와 美國은 석유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日本은 1990년대에 들어, 역시 석유산업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석유稅·환경稅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지 모르지만, 일종의 규제강화 방향으로 나가는 수단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석유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의 경우, 2000년에 10\$/B의 세금을 목표로 1990년대초에 1\$/B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유럽의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EU는 美國 및 日本을 비롯하여 여타 국가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측이 환경 보전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호주의적인 조

치라고도 할 수 있겠다. 무역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유럽측이 어떤 제안을 수용하느냐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이미 계획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2000년까지 10\$/B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금년에 도입한다고 해도 3\$/B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더욱 늦어져서 내년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한꺼번에 4\$/B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이것은 유럽의 경쟁력에 매우 큰 타격을 주게 되므로, 실제로 4\$/B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좀더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지느냐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EU의 日本에 대한 압력은 높아질 것이고 EU는 日本도 동시에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달러로 시작하느냐, 또는 2달러로 시작해서 2000년까지 10달러라는 목표를 2003년 또는 2004년까지 지연시키느냐 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유럽 각국간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시점에서의 실정이다.

美國 및 유럽 쌍방에 있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세금이 도입될 경우 석유수요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OPEC 및 일부 非OPEC 제국은 지난 수년간 생산능력 증강을 위해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다. OPEC를 합치면 3,800만b/d의 생산능력이 가능하다고 한다. 모든 산유국이 많은 투자를 해서 생산능력을 증강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고 1,050만b/d의 생산이 가능하다. 현시점에서 950만b/d는 가능하며, 93년말까지는 1,000만b/d, 그리고 94년말까지는 1,050만b/d까지 증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란은 현재 400만b/d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걸프사태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으며, 93년말에는 250만b/d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고, 94년말까지는 300만b/d의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UAE도(주로 아부다비) '95년까지는 300만b/d 가까운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OPEC 각국은 1,000억달러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능력 증강에는 베네수엘라 및 리비아 등도 포함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이처럼 많은 투자를 해온 것은 세계의 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세계에서는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변화는 매우 급격했고, 그 파급 효과도 컸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구소련의 붕괴 등이 그것이다. 東西 독일의 통일, 그리고 현재는 러시아 연방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걸프 지역에서도 큰 사건이 몇가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다. 아직 이 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고 있으나,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석유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큰 변화이다. 석유산업은 향후 30~40년 정도는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40년 이상 계속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선진공업국에서의 경제 확대, 또는 경쟁력의 증강을 위해 석유산업은 지속하기 어려운 산업이 아닌가 전망된다. 따라서 G7에 있어서도 석유산업의 전인차적인 역할은 앞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 단기 예측

### (1) 단기수요예측 및 가격전망

그럼, 향후 석유산업에 있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또한 석유산업에 대체할 지속 가능한 에너지산업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중기 또는 단기적인 석유시장 및 유가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의 수급관계를 보면 균형이 잘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향후에도 이라크가 계속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이라크가 다시

생산을 재개한다면 국제석유시장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이라크의 고립은 앞으로 5년 정도 계속될 것이다. 5년간 고립이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수조치 또는 제재조치에 대해 매우 적절히 대응해온 것으로 보아, 5년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1년이나 1992년 보다는 제재조치나 금수조치에 대해, 이라크가 국내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가고 있다는 징후를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라크가 5년간 고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석유의 수급 균형은 적절한 균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세계의 OPEC 석유에 대한 수요는 1990년대 후반에 3,500만b/d정도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각국은 과잉투자를 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사우디에 있어서는 1,050만b/d 중 아마 200만b/d 정도는 과잉이 될 것 같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에 있어 사우디의 실제 생산량은 850만b/d 정도이고, 前半에는 800만b/d 수준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유가는 소폭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느냐 여부는 향후의 OPEC 동향에 달려 있다.

향후 세계의 휘발유 수요는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고 원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특히 中國의 수요가 큰 변수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질유의 대부분이 中國에 의해 흡수되어, 여타 국가들은 나이지리아에 까지 손을 뻗혀 조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마트라 등의 경질유 생산이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오래되어, 감소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질유에 있어서는 공급이 다소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향후 2~3년내에 보다 많은 경질유 생산능력을 보유할 것이 예상되므로, 불균형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급균형은 유지될 것이다.

향후 5년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에 유가는 배

럴당 1~3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5년간의 경제, 환경, 정치의 향방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에 배럴당 1~3달러 정도의 변동이 예상되는 것이다. 다만 과거 2년간, 세계는 매우 심각한 불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에는 별로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2년간 석유수요는 큰 변동이 없었다. 1980년대 후반에 세계 불황이 심각해졌을 때는 세계에서 약 300만b/d의 수요감소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및 수송용 수요는 현저하였다. 특히 수송용연료에 있어서는 아직도 휘발유의 대체 에너지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 공급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향후 5년 후, 또는 더욱 먼 장래를 전망할 때, 경제성장 보다 다른 요인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석유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유가는 저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당분간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저렴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종의 레임덕 현상이 생길 경우 다시 세율을 인상하려는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이다.

## (2) 예측 수립은 곤란

과거 5년간의 사건은 아무도 예측 못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예측을 수립한다는 것은 곤란한 작업처럼 생각된다.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붕괴, 그리고 부시대통령이 걸프전에서 근대사에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국내경제에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으나, 향후 3년후 클린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엔 매우 정확한 정보에 의거한 우수한 시나리오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정세를 예의 관찰하여 이에 근거한 시나리오

를 수립,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세계정세를 보면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이 제각기 독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전세계를 총괄하는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향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세계는 항상 변화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어떤 방향으로 변해갈 것인가는 알 수 없으므로 미지의 상태에 대해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작업이라고 생각 되는데, 그 시나리오는 우선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단위별로 만들어, 그 중 하나가 변화시에는 하나의 단위만을 바꿔서 보다 좋은 시나리오로 수정해 가면 될 것이다. 모든 기업은 향후에 그런 형태로 대처해야 한다. 왜냐하면 향후 30년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3. 최근의 중동정세

### (1) 이란

中東의 政策決定者(decision maker)들은 점차 젊은 세대로 교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의 권한이 젊은 세대로 확실히 이양되기까지는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1995년에 국내정세가 상당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라프산자니 대통령은 93년 6월에 재선된 후, 경제적 업적에 의해 국민을 납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1994년 중에 그의 경제적 업적이 대다수의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 라프산자니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완전히 실망하여, 그에 대한 신임은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정치지도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1995년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그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다. 왜 이런 예상을 하는가 하면, 이란 국민은 과거 13년간 보다 좋은 생활을 추구해서 강한 인내심을 갖고 지도자들을 지켜 보았으나, 그동안 사정이 개선되기는 커녕 점차 악화되어, 인내가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 (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향후 5년 동안에, 현 파드국왕이 서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압둘라 황태자가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황태자도 국왕과 연령 차이가 얼마 안되고 건강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의 왕위계승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좀 더 젊은 세대에 계승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향후 5~7년 사이에 현재 사우드 외무장관이 국왕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방향으로 진전하면 매우 건전하여 사우디에게는 밝은 미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암투에 의해 다른 사람이 국왕에 임명되었을 때는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 (3)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향후 5년간은 더 집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완전한 제재, 금수 상태하에서 이처럼 살아 남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그는 中東에서 서서히 영웅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中東 각국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라크 국민들이 가혹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인자중하고 있는 후세인 대통령에 대해 존경심이 싹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슬람 세계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조치와 이라크에 취한 조치를 비교하면 이라크에 대해서는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동정심도 나타내고 있다. 만일 5년간 고립이 계속된 후 제재가 해제될 경우는 중동 정세가 변하게 되겠지만, 어찌면 후세인이 바라던 형태로 고립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쿠웨이트의 존재는 매우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이라크와 사우디가 협력하여 쿠웨이트를 박멸시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라크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그 존재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여러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책결정의 수단 및 능력이 보다 젊은 세대로 이양되려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무엇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예컨대 이라크에 향후 몇년간이나 고립상태가 계속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반면에 이라크가 후세인이 바라는 형태로 세계의 일원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면, 어찌면 유엔 안보리가 1990년부터 이라크에 취해온 결의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 표명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부권을 발동하여, 1990년 이후의 對이라크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라크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다시 세계로 복귀하게 된다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야기되면 중동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큰 파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강경파, 민족주의자가 등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서방 세계, 특히 美國이 엘친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어서 갖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

〈월간 석유〉